

이름: 이지운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 날씨: 맑음

제목: 일산 꽃 박람회장에 다녀와서

큰 이모네와 일산 꽃 박람회장에 갔다.
세계의 여러 나라의 꽃이 참 많았어.
그 중에서도 잎은 피는 시체 - 꽃
이 가장 신기했다.

꽃이 무척 크고 이름이 무시무시 했지만
그래도 세계에서 보기 힘들 꽃이라고
한다.

그리고 이꽃은 20십년에 한번씩 핀
다고 하니 내가 28살에 또 필 것이다.

또 다른 장소로 가보니 세계의 멍종위기종
식물도 보았다.

이것을 보니 자연과 환경을 잘 지켜야
겠다고 생각이 들었다.

피곤했지만 좋은 하루였다.

